

연구모임 정책건의 보고서

연구모임명	굿바이 플라스틱 2. 우리동네 플라스틱 멘토단		
연구기간	2020. 5. 25 ~ 2020. 11. 24		
대표자 소속	북구도시재생환경공동체	대표자 성명	김현자
참여자 성명	김현자, 남태화, 허진순, 박순이, 공종연, 박미숙, 김효정		

◆ 연구모임의 목적

- 지역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혹은 부녀회), 마을공동체 대표, 환경단체 대표 등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멘토단’ 구성으로 지역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주체역량 강화
- 멘토단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 플라스틱 감량 네트워크 결성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확산
- 모니터링 등 멘토단 활동결과를 간담회 형식을 통해 구의회 주민생활위원회, 북구청 자원순환에 전달하여 규정 및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정책건의

◆ 연구모임 주요내용

2019년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와 플라스틱문제 돌아보기 -쓰레기 vs 자원순환 (자원순환단지 탐방) -자원순과 플라스틱 문제를 생각하는 굿바이 플라스틱 공감토론회 -미세플라스틱 대안제품 체험 -북구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굿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스틱 멘토단 구성 및 교육 -플라스틱 배출실태 모니터링 실시 -멘토단, 북구주민, 북구의회, 자원순환과와 플라스틱 줄이기 토론회 진행 -멘토단 전파활동, 굿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정책건의서 작성 및 전달

◆ 연구모임의 구성원

대표	김현자	지역단체활동	굿바이 플라스틱팀의 올가나이저로, 3년째 모임 참여중이며, 연구모임 참여를 계기로 2019년 4월에서는 북구도시재환경공동체 모임을 결성하였고 2020년 연구모임 대표를 맡아 지역의 환경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함
참여자	남태화	입주자대표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아파트내 쓰레기 문제, 분리배출을 책임지고 있다. 2019년부터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아파트 내에 재활용 분리배출 상설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이 풀리지 않는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문제다. 굿바이 플라스틱 팀을 통해 우리 아파트와 북구지역을 변화시킬 노하우를 얻고자함.
참여자	박미숙	봉사단구성원	북구지역의 손과발 봉사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음. 16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연구모임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쓰레기 문제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참여자	공종연	마을학교교장	덕천1동 행복한 마을학교 교장으로 사회적 약자계층 대상의 무료급식활동, 동네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플라스틱 줄이기와 재활용에 대해 배워서 행복한 마을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속하고자 함
참여자	허진순	마을공동체회장	2019년부터 연구모임에 합류하여 아파트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실천수행. 아파트관리소와 단지내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함께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임대아파트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구모임에 참여중임. 2019년에는 저장강박증 세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활동을 수행하여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가 북구에서 제정되는 계기가됨. 그 외 다양한 활동성과가 인정받아 2020년 부산광역시 재활용공모전에 금상을 수상함
여자	박순이	통장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로, 공적으로 북구 덕천3동 통장으로 활동중임. 2019년부터 참여한 연구모임활동을 계기로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개인주택의 재활용 활성화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음. 특히 미래세대를 위해 자원재활용과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해 앞으로도 연구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
참여자	김효정	구의원	현직 구의원이자 워킹맘, 2018년부터 연구모임에 함께하고 있으며, 연구모임 활동내용을 의정활동으로 적극 연결하여 2020. 북구청의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변경하는 성과를 만들었고, 2020년은 멘토단과 북구의회, 자원순환과 한자리에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됨

◆ 연구모임의 정책건의

1. 총평

○ ‘굿바이 플라스틱 2. 우리동네 플라스틱 멘토단(이하 굿바이 멘토단)’ 팀은 전년도에 진행한 ‘굿바이 플라스틱_일상생활속 플라스틱 줄이기 노하우 연구’ 사업을 토대로 북구지역에서 본격적인 플라스틱 감량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2020년 굿바이 멘토단은 2019년 연구모임 참여자들이 대부분 합류한 가운데 북구지역내 쓰레기 및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확대를 위해 ‘행복한 마을학교’, ‘손과발뽕사단’ 등 북구의 자생적 환경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충원됨

○ 2020년 굿바이 멘토단의 주요활동은 ①플라스틱 멘토단 구성 및 교육 ② 플라스틱 배출실태 모니터링 실시 ③멘토단, 북구주민, 북구의회, 자원순환과와 플라스틱 줄이기 토론회 진행 ④멘토단 전파활동, 굿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⑤ 정책건의서 작성 및 전달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다소의 일정 지연은 있었지만 전체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됨

○ 2020 굿바이 멘토단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습하고, 실제 우리 동네의 플라스틱 배출실태를 멘토단이 직접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생각하는 플라스틱 분리배출, 플라스틱 줄이기 등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지자체와 구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민관 공동의 토론장을 마련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대단히 의미있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코로나 19 상황속에서도 50여명 가까운 북구주민들이 코로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하고 지역주민 대상 굿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으로 전체 프로그램 종료

2. 정책건의사항

1) 2020.7. 북구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화과로 명칭변경된 의미를 공무원, 의원, 구민들에게 적극 전달함으로써 자원순환 실천 촉진 필요

2020.7.1.부터 북구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개칭됨. 부산시 16개 구(군)중 7번째로 이루어진 성과이므로, 형식적 명칭 개칭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구청내 공무원들에게 명칭개칭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지역 풀뿌리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주민들에 널리 전파하고 자원순환실천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함

2)플라스틱 멘토단 홍보 및 활동 적극 지원 필요

2018년부터 이어온 지역참여형 연구모임이 2019년 북구도시재생환경공동체라는 풀뿌리 환경단체결성으로 이어지고 2020년 자원순환과 명칭개칭, 북구의회, 북구청, 북구주민이 함께한 민관공동토론회라는 성과를 창출.

이러한 성과를 북구주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동별로 굿바이 플라스틱 멘토단의 활동을 확대하고 공식화하고 2020 굿바이 플라스틱 멘토단 사례를 북구신문, 주민센터, 통반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멘토단 활동이 탄력을 받고 북구지역의 플라스틱 줄이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3) 멘토단 토론회 결과 구정반영

2020 굿바이 멘토단 활동의 최대성과는 주민, 지자체, 의회, NGO가 연계하여 개칭 최초로 쓰레기문제와 기후위기 시대 최대 현안인 플라스틱 문제 ‘를 민관공동의 토론회로 현실화했다는 점. 북구 자원순환과와 의회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분리배출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북구 주민 전체가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연 2회 쓰레기문제 및 플라스틱 줄이기 북구주민 대토론회 개최 등)

4)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 적극 홍보

2020 굿바이 멘토단이 실시한 ‘우리동네 플라스틱 배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 플라스틱 분리배출시 어려운 점으로 비닐을 떼어내기 어렵다 40명, 몸체와 뚜껑 등 복합재질문제 38명, 분리배출방법 안내가 헛갈림 28명, 무응답 6명으로 나타남. 배출자의 입장에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분리배출대상인 재활용품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분리배출이 어려움을 알 수 있고 분리배출방법 안내가 구체적이지 않아 어렵다는 응답자도 28명 이름.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플라스틱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재질 개선’이 시급함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음

(*상세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복수응답 반영)

-->굿바이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분리배출 현장에서 배출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안내게시판(현수막)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계층들이 밀집해있는 임대아파트는 별도의 맞춤형 홍보가 필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 마을공동체, 지역환경단체 연계)

-->페트병 분리배출 샘플을 게시하여 부산광역시 재활용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한성맨션(2019년)의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타 아파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전파 필요함

○ 1회용 빨대 배출방법에 대해서 플라스틱으로 배출 51명, 종량제봉투에 배출 29명, 잘모름 13명, 스티로폼으로 배출 2명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의 51%가 1회용 빨대 분리배출을 플라스틱 배출로 오인하고 있고, 배출방법을 스티로폼으로 오인하거나 모른다는 응답자를 포함하면 66%가 1회용 빨대의 배출방법을 잘못알고 있어 이에 대해 구청차원의 정확한 홍보가 필요함.

○ 플라스틱 줄이기 방법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해야 한다 32명, 대시민홍보 및 교육강화 28명, 플라스틱 사용자 부담강화 21명, 재활용기술개발 18명, 무응답 1명으로 나타남

-->플라스틱 생산규제와 대시민홍보 및 교육강화, 플라스틱 사용자 부담

강화에 대한 응답자가 81%를 차지하여 응답자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편함을 감수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제대로 실천할 의향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의미있는 조사결과임

-->지자체에서 북구구민 대상 홍보와 교육에 적극 나서야함

**** 참고 : 2019년 정책제언내용**

입주민이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온-오프 쌍방향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

-->현재 지자체 홈페이지에 플라스틱 분리배출요령을 안내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익숙지 못한 주민들의 경우 활용도가 떨어짐.

-->재활용분리배출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아파트 홍보판에 눈에 잘 띄는 크기로 플라스틱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이 정확히 안내되어야 함

5) 주민대상 플라스틱 줄이기 학교 개설

플라스틱 감량 멘토단과 연계하여 분리배출방법을 현장적용가능하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학교 개설운영 필요

-->일반주택의 경우 재활용분리배출요령을 수시로 홍보물로 안내하되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안내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일반주택의 홍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6) 기타(* 2019년 정책제언 내용이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

○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은 여전히 절실

-->지자체 수장이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개인물통을 가지고 다니고, 지자체 주최의 각종행사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홍보판을 항상 제시하여 행사참가자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

-->지자체 행사에서 친환경행사기획을 권장하여 친환경행사기획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해당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자체차원의 실천노력을 확대해나가야함.

○ 공공장소에서 1회용 생수나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 혹은 회수시설설치

--> 대형유통매장, 커피숍, 영화관, 지하철, 버스, 기타 다중이용시설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홍보물 게시, 캠페인 실시를 유도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실천’ 등의 현판을 지자체 명의로 제공. 이후 지역방송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널리 알려져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조치

--> 롯데마트에서 운영중인 빈병수거함 같은 회수시설을 대형유통매장 혹은 플라스틱생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회수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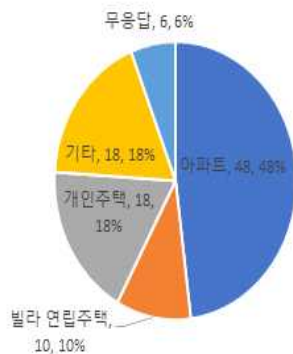
※ 참고 : 2020 우리동네 플라스틱 배출실태조사 주요결과

○ 조사기간 : 2020.9.1.~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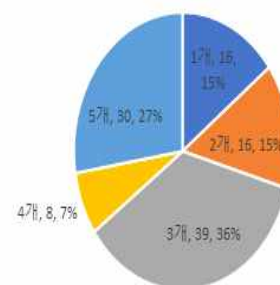
○ 조사대상 : 총 100명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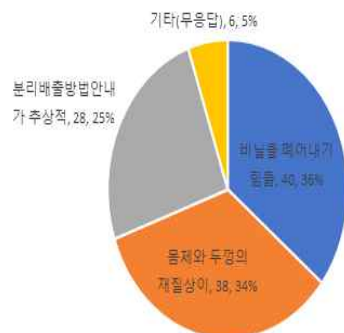
거주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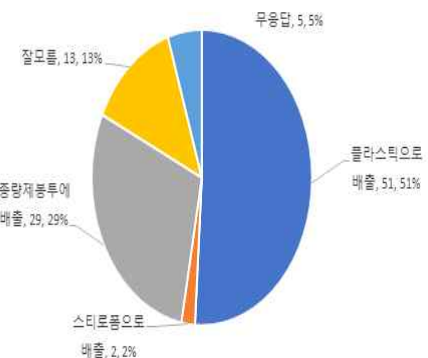
플라스틱 분리배출가짓수



플라스틱배출시 어려운 점



1회용빨대배출방법



플라스틱 줄이기방법

